



이철수 작 '천은사 일주문'

이오. 굶지 말고 어서가시오"하고 유혹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마왕 파순이 그런 말 하지 마라. 여래는 세간의 음식을 탐하지 않는다. 여래는 열반의 기쁨을 먹고 사느니라 파순아 그대도 열반의 맛이 어떠한지를 알아 한다"고 하였다.

이제 파순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곧 자취를 감추었고 부처님은 아무렇지 않게 기원정사로 돌아오셨다. 한가 있으면 있는데도, 없으면 없는대로 지내시는 부처님의 탐착없는 행위 속에서 보다 가치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육신을 기르는 음식만 탐하지 말고 마음을 기르는 참된 음식이 무엇인지도 배워서 심신을 함께 보양시켰으면 한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 法數로 배우는 불교

<39>

음식이나 경험을 먹는 것을 말한다.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것, 이념이나 경험등의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관찰하는 것 등이다. 다섯째는 선열식(禪悅食)으로 수행에 의해 얻어진 선경의 기쁨을 먹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집중되어 깊은 삼매속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으로 세상의 감각적 쾌감과 다르다. 여섯째는 법식(法喜食)으로 법의 기쁨을 먹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을 뵈고 설법을

으로 깨달음을 먹는 것을 말한다. 생노병사와 우비고서의 일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자재한 경지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볼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섭취하는 것은 단식이나 속식, 그리고 사색이나 식식 뿐이다. 이에비해 수행인들은 선열식, 법희식, 원식, 염식, 해탈식을 함께 섭취하여 심신을 보양한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음식을 얻으려 사위성

### 몸과 마음 기르는 9가지 양식 수행자 선열·해탈식 즐겨섭취

들으면서 심신을 쌓고 화희심을 일으켜 공덕을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일곱째는 원식(願食)으로 큰 서원을 먹는 것을 말한다. 중생을 제도하고 불도를 완성하겠다는 원을 발하되 물러남이 없고 끊임이 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여덟째는 염식(念食)으로 바른 마음을 먹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염(念)이란 보호하여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잊지않고 늘 챙겨야 될 마음 관찰을 가리킨다. 아홉째는 해탈식(解脫食)

에 들렀을 때의 일이다. 한번은 부처님이 음식을 아무에게서도 받지 못한 채 빈 밥그릇을 들고 돌아오시게 되었다. 성인에 축제가 열려 모든 사람들이 물러가 집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부처님앞에 모든 악의 왕인 파순마왕이 찾아왔다. 그리고는 "고타마여(파순마왕은 부처님을 부를 때 꼭 성을 불렀다) 어찌서 기다리다가 맛있는 음식을 받아가지고 그냥 돌아 가시는가. 지금 다시 성인에 가면 축제가 끝나 음식들이 많을 것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37

### 불교와 수학

32

### 진리의 다양성

김용운

비(非)유클레이데스 기하의 등장 비(非)유클레이데스 기하의 등장은 서양 사상사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비유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 자체로서는 별다른 응용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으나 수학의 연구 방법, 더 나아가서는 수학을 보는 '눈'을 크게 바꾼 것이었다. 그때까지 절대적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유클레이데스 기하학의 '진리성'이 영구 불변이 아님이 밝혀진 것이다. 공리(公理)는 현실 세계의 실제(實態)를 비추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약속(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순이 없으면 어떤 공리를 내세워도 상관이 없다. 공리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진리성보다도 유흥질서(流通秩序)를 유지하는 화해의 '신용' 쪽이 문제가 되었다.



그림·최주현

### 현대수학의 公理는 진리 아닌 가설 임제스님 1천년전 '사고의 전환' 선도

공리계가 연이어 나타났다. 이전 수학이라면 으레 공리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에도 유클레이데스 기하는 여전히 각별한 권위와 지지를 누릴 수 있었다. 자연 현상의 유일한 설명 원리인 뉴턴 물리학이 여전히 유클레이데스 기하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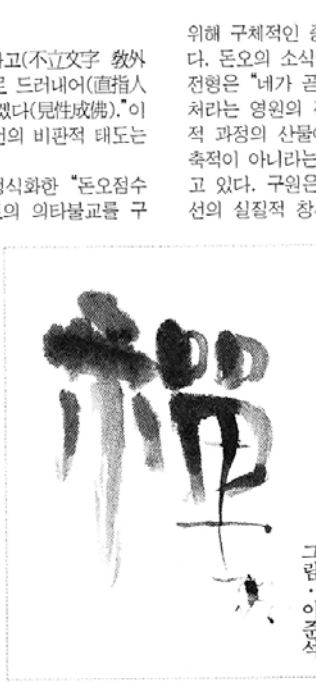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양자역학(量子力學)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이 탄생하였다. 쿼미의 세계에 일어나는 확률론적인 현상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은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절대 진리를 전제하는 이론은 모두가 부정될 것이다. 이처럼 기하학의 영역에 국한시켜 생각해 봐도, 유클레이데스 기하학은 물리학이나 기타 자연과학의 유일한 길잡이가 아니라 여러 학(기하학) 체계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다.

유럽 세계는 여태 '진리는 하나'라는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이 진리를 줄곧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제 무엇이 옳은지는 공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다. 공리를 자명(自明)으로 명백함) 명제로 간주한다면 그 결과는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한낱 선입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진 것이다. 진리가 아니라 당분간의 유훈이 보장된 가설이 아니었던가! 20세기 수학의 의상(衣裳)은 행동이 자유한 진리라는 구시대적 의상을 떨치고 행동이 가벼운 '약속'이라는 평상복으로 바뀌 입은 셈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사고의 전환'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 등은 모두 사고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을 선도한 것이 수학이었고 또한 그보다 천여년전 임제는 수처자주입처개진(隨處作主立處皆眞)을 통해 진리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 한형조 무문관 탐방

29

### 돈오의 제창



그림·한형조

달음"을 뜻하지 않고, "원래 시간이 없는, 즉 영원의 사건 아닌 사건으로서의 깨달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역설이고, 또한 신비이다. 이 말이 무에 세삼스러운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 교설의 다양한 실례와 변주를 접해왔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종시 의혹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인 증례를 하나 더 들어보기로 한다. 돈오의 소식을 알리는 운건하고 직실적인 정형은 "내가 곧 부처이다"라는 표현이다. 부처라는 영원의 진리, 혹은 그 깨달음은 시간적 과정의 산물이거나 훈련으로 인한 점차적 축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은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구원은 네 자신의 본질로서 이미--선의 실질적 창시자 혜능(惠能)의 표현을 보면, "부모가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면목(本來面目)으로서"-- 존재한다. (여기서 시간적 훈련을 논여겨 보기 바란다. 나라는 존재는 시간의 계열 안에서서는 결코 부모 이전에 존립할 수 없다. 혜능이 이같은 모순과 역설을 "의도적으로" 쓴 것은 바로 인간본질의 초시간성, 즉 轉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런 점에서 귀적(歸寂)하신 해인사 성철 스님의 말씀이 그르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모든 언어는 맥락과 의도를 갖고

선(禪)은 불교의 중국이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 그것을 제외한 어떤 수식도 변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근본주의정신(래디칼리즘)의 천양이다. 이를 위해 선은 구체적으로 당대를 풍미하고 있던 대승의 난만한 형이상학과 말류의 기복적 정토의식과 맞서야 했다. 전자에 대한 대결의 식은 다음과 같은 케치프레이즈에 잘 나타나 있다. "문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不立文字 教外別傳) 마음의 본질을 곧바로 드러내어(直指人心) 궁극적인 깨달음을 열었다(見性成佛)." 이에 비해 정토의식에 대한 선의 비판적 태도는 어찌래도 덜 알려져 있다. 선의 정신을 간명하게 정식화한 '돈오점수(頓悟漸修)'는 특히나 정토의 의타불교를 구체적으로 의식하고 쓰여진 것이다. 정토의식은 자신의 내적 가능성보다 타율적 구원에 의존해 왔다. "나는 하잘것 없는 중생이다. 저너머 정토에 계시는 무한한 힘의 부처들이 나를 이 비참한 사바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라 오실 것이다." 그들은 일구월심으로 받고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릴 뿐,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걸려 하지 않았다. 수천수만의, 아니 아수지의 겁(劫)을 배를 깔고 살을 태워서야 보인다는 경지를 누군들 꿈꿀 수 있

### 깨달음 포기한 '타력신앙' 경계 아만·게으름등 부작용 우려 '점수' 처방

았겠는가. 그것은 비천하고 번번에 싸인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멀고 아득한 곳이었다. 이런 자포자기의 정토만이 유포한 것이 아니다. 화엄(華嚴)이나 천태(天台)의 교설들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삶의 비참함을 강조하고 지장(地藏)의 구원을 말하는 법화(法華)의 세계나, 절대적 중경인 해인삼매(海印三昧)에 이르기 위해 십지(十地)의 열 계단을 하나 하나 밟아야 한다는 화엄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아예 궁극적 깨달음에 대한 자발적 노력을 포기하라고 풍용하는 것과 진배없었다. 선은 이토록 깊이 몰든 대중의 무기력에 충격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흡사 죽어가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쓴다는 용혈의 대침같은 것이었다. 그 대침이 바로 돈오(頓悟)라는 것이다. 돈오를 점집에서는 "몰록 계침"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는 석연치 않은데 어쨌거나 깨달음이 단번에 한 순간에, 즉 아주 짧은 시간동안에 일어난다는 뜻일 것이다. 나는 이같은 해석이 옳다고 생각한다. 돈오의 돈(頓)이란 깨달음에 이르는 기간(span)의 짧고 적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성격과 내용을 알려주는 연표이다. 깨달음에는 과정이나 계위(階位)같은 점차(漸次)라는 (시간)이 개입되지 않는다! 요컨대 돈오란 "이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의 깨

달음도 기억해야 한다. 하나의 언어 혹은 명제는 보편적 맥락과 총체적 의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그래서 모든 언설이 일면적 목적성과 상대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한다. 불교적 언설의 그같은 특징을 일러 방편(方便 upaya)이라 한다. 돈오의 교설 또한 일정한 맥락 아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제창된 것이므로 자체의 한계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모든 약은 독이다. 동네약국의 조제실 유리칸막이에 달려 있는 파머시(pharmacy)의 그리아스 윈어 파르마콘(pharmakon)이 꼭 그렇듯이. 방울뱀의 독은 물론 사람에게서 치명적이지만 또 한편 정제해서 쓰면 난감한 병을 다스릴 수 있다. 불교는 이런 비유를 쓴다. 같은 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돈오의 가르침 또한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또 다른 병을 유발한다. "내가 곧 부처이다"는 처방은 자포자기의 고질은 고쳐주되 불교가 그토록 타기하는 아만(我慢)의 증장(增長), 그리고 도덕적 무감각의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다. 이제는 허세와 자만에 빠져 수련을 게을리하고 대중의 정제(淨化)를 헛되이 소모하는 죄업을 다스려야 했다. 그 처방안이 바로 점수(漸修)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수행자를 위한 여시아문의 책. Includes book covers for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삶은 꿈가 아니다', and '금강경 대강좌'. Text describes the books as essential for practitioners, offering insights into Buddhist philosophy and practice.